

# 광양시 “어린이날 ‘이곳’ 놀러오세요”

### 광양에코파크·전남도립미술관·섬진강끝마을 등 추천

광양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맞아 꿈을 키우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하고 안전한 장소를 추천한다.

시는 광양에코파크, 전남도립미술관 & 광양예술창고, 섬진강끝마을 등 어린이날에 가볼 만한 유익한 장소를 골라 선보인다.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모험과 도전정신을 기를 수 있는 이색체험공간, 광양에코파크를 추천한다.

동굴체험학습장인 에코파크는 매직포레스트룸, 점핑, 암벽 등반, 화석 탐사 등 오감을 자극하는 콘텐츠로 가득하다. 미세먼지, 꽃가루, 비 등 외부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정전후 공간인데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어 안심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다.

지난 3월 개관한 전남도립미술관, 광양예술창고도 어린이들과 가볼 만한 추천 목록에 포함됐다.

섬진강끝마을 아트자전거



전남도립미술관



도립미술관 개관 특별전을 통해 3개국 13명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으며, 야외 썬큰가든(sunken garden)에서도 줄리안 오프, 자비에

베이앙 등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가는 미술관은 자칫 낯설기 쉬운 미술관을 친숙

한 장소로 느끼게끔 하고, 관람예절 등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유익한 경험을 제공한다.

도립미술관과 함께 문을 연 광양 예술창고는 전이수 작가와 지역 학생들의 콜라보, 기록사진의 대가 이경도 작가의 아카이브와 함께 문화 쉽터, 어린이 다락방 등 다양한 즐거움을 한 공간에서 맛볼 수 있다.

섬진강변에 위치한 섬진강끝마을도 어린이날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손색이 없다.

천연 염색, 도자기체험, 목공예 등 다채로운 체험이 가능하며, 봄바람을 가르며 아트자전거를 타고 맑은 섬진강을 라이딩할 수 있다.

인근 '울동주 유교 보존 정병욱 가족'에 들러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보존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만나보는 건 덤이다.

박순기 관광과장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문화예술이 풍부한 광양 곳곳의 이색공간에서 맘껏 뛰어놀고 무한한 상상력과 오감을 만족하는 어린이날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양=심종섭기자



## 보성울포해수욕차센터, 미술관으로 변신

### 힐링센터로 우뚝...창작미술 전시 공간 활용사업 추진

보성군이 울포해수욕차센터 내에 출향작가들의 미술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을 마련한다.

‘창작미술 전시 공간 활용사업’을 통해 지역미술작가의 창작활동을 돕고, 수준 높은 작품을 전시하여 주민과 관광객에게는 볼거리와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달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참여 작가를 모집한다. 전시 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로 3차로 나누어 최대 18회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전시 장르는 회화, 조각, 공예, 판화, 소묘, 비디오아트, 사진, 서예 등 폭넓

은 미술 분야의 작품들로 신청자격은 지역작가 또는 보성군 출향작가이다. 전시 장소는 울포해수욕차센터(보성군 회천면 우암길 21) 1층 특산물판매장 내에 마련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작가들의 미술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공간이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라며

“창작미술 전시 공간 활용사업을 통해 지역작가들의 작품 소개 등 지역 미술문화 발전을 이루고, 보성의 명물인 울포해수욕차센터가 복합 힐링센터로 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성=김영숙기자

## 광양시 남고매실, 수도권 판로 개척 나서

###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와 유통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청매실보다 수확시기가 다소 늦어 청매실에 비해 판로가 안정적이지 못하지만, 신맛이 적고 단맛이 강해 최근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광양시 내 남고매실은 재배면적이 257ha로 시 매실 재배면적 1,416ha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탁영희 농산물마케팅과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광양시 남고매실의 판매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광양 매실을 마케팅해 판매가 늘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본격적인 매실 출하가 다가옴에 따라 TV 예능 프로그램과 홈쇼핑을 통해 매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광양=심종섭기자

광양시는 남고매실 유통 활성화와 판매 확대를 위해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등 수도권 유통업체 및 전남남고매실작목반과 4월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증가하는 남고매실 수요에 맞춰 광양시 남고매실의 안정적인 생산과 원활한 공급 지원, 마케팅 강화로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확약하기 위한 것이다. 남고매실은 일명 홍매실로 불리며

## 여수시,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 다음달부터 희망장려금 지원한다

#### 연매출 3억 원 이하 신규 가입자 대상 1년간(12회) 월 1만 원 지원

여수시는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공제가입 촉진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5월부터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 중인 공제제도로, 소상공인이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적립하면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지급사유 발생 시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공제금으로 지급한다.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목돈마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

여수시는 여기에 더해 사업체가 여수시에 소재한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5월부터 노란우산공제에 신규가입하면, 매월 가입자가 내는 부

금과 함께 시에서 1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최대 12회 적립해 준다. 전라남도에서 지급하는 2만 원과 중복 지원 받을 경우 예산 한도 내에서 최대 월 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여수시는 코로나 사태로 생계가 불안정한 소상공인들의 자립을 돕고자 금년 2회 추경에 6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단 장려금 부정취득을 위한 일시적인 공제회 가입과 2년 이내 중도 임의 해약할 경우 장려금은 전액 회수 처리된다.

신청방법은 지역 내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가입상담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062-955-9966)로 하면 된다.

여수=오상호기자

## 순천시, ‘나도 작가’ 시민 책쓰기 프로그램 운영

### 순천시립연향도서관서 청소년과 가족 대상 책쓰기 프로그램

순천시는 시민 책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순천시립연향도서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래자서전으로 진로를 기획하라’와 ‘가족이 함께 쓰는 삶의 이야기’ 2개의 책쓰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미래자서전으로 진로를 기획하라’는 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공모사업 심화과정 분야에 4년 연속 선정되어 2018년부터 꾸준히 진행해온 프로그램이다. 올해에는 순천 중고등학교 30명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5일부터 총 20회 운영될 계획이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입재성 작가, 이미지 강사와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하여 꿈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이미 이론 것처럼 상상해 유년기부터 노년기까지의 인생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가족이 함께 쓰는 삶의 이야기’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으

로 5월 15일부터 총 21회 운영될 예정이다. 누구나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주 등 20살의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세대가 함께 참여하여 각자 삶의 이야기를 자서전 형식으로 풀어내며, 공통된 이야기를 찾아 그 이야기를 서로 다른 관점으로 풀어내 상대를 이해하고 회복하여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과정이다.

2개의 프로그램 모두 모든 과정을 수료하면 1권의 책을 출판하게 되고 자신이 쓴 책을 일부 제공받으며, 순천시립도서관에도 비치되어 열람할 수 있다.

참여신청은 순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5월 12일까지 모집한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순천시 연향도서관(061-749-85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김승호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간격거리를 두어 주세요!